

2019.6.26 재지민

5/12/일

오늘은 주민등록증에 새장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려한 날이다. 평범하다 보였지만  
 나갈 준비를 하던 친구랑 만나서 난원에 갔다. 친구가 잘 찍는 스튜디오를 안대서 친구를 따라갔다.  
 근데 친구가 스튜디오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<sup>사리를</sup> 것이었다. 본도 더운데 헤매니까  
 속으려는 짜증이 났지만 친구는 용건도 없는데 같이 가려니까 터너건 없었다. 계속 헤매다  
 지도를 찾아보았는데 같은 이름 스튜디오가 두군데 나왔다. 첫번째로 뜬 곳을 가봤는데 친구가  
 여기 아니라 해서 두번째로 뜬 곳을 갔다.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. 알코비 두번째로 뜬  
 첫번째로 뜬 곳이 이사하기 전이 있던 곳이었다. 첫번째로 뜬 곳이 새로 이사한 곳이었  
 너무 벅달았지만 어딘지 알았으니 안심을 하던 먼저 점심도 먹고 쇼핑도 했다. 볼 일을 다 보고  
 스튜디오로 갔는데 <sup>사리</sup> 찍으려면 시간이상 기다려야한다고 하셨다. 그때 점심을 머리머음  
 하였습니다. 제인 아씨가 중요한 일을 먼저해야하는데 우선순위를 잘못 든 내가 한심했다.  
 그래서 어쩔수 없이 우리동네에 와서 바로 찍었는데 팜방방에 머리도 빗겨머져서  
 영망으로 찍혔다. 그리고 당장 다음날 필요한 문제집을 사러 서점에 갔는데 다 나갔을뿐  
 야까 남편이서 물건 살때 적립카드를 ~~X~~ 돌려 받지 않은 것도 집에 와서야 알았다.  
 하루종일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녔는지ㅠ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텅방대지 말아야겠다